

連結語尾의 意味 關係와 韓國語教育에서의 連結語尾의 配列 樣相 研究

— 有標性에 基盤한 連結語尾의 意味 關係를 중심으로 —

洪 允 基

(慶熙大 副教授)

要約 및 抄錄

이 논문에서는 有標性을 기반으로 한국어 連結語尾의 意味 關係를 분석하였다. 同等/類似 關係, 時間 關係, 對立 關係에 속하는 연결어미가 고유의 意味 關係를 가지는 것은 有標性에 의한 分化의 결과임을 논의하였고 條件 關係, 因果 關係, 期待 否定의 關係에 속하는 연결어미 역시 有標性에 따라 고유의 意味 關係를 실현한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 “-고(동등/유사) ⇒ -고(계기) ⇒ -자마자(즉각적 계기) ⇒ -(으)ㄴ 후에(계기) ⇒ -기 전에(계기) ⇒ -(으)면서(동시) ⇒ -어서(계기) ⇒ -지만(대립) ⇒ -는데(대립) ⇒ -(으)면(조건) ⇒ -어서(인과) ⇒ -(으)니까(인과) ⇒ -(으)ㄴ데(배경) ⇒ -기 때문에 ⇒ -(으)ㄴ 덕분에(인과) ⇒ -는 바람에(인과) ⇒ -어서 그런지(인과) ⇒ -어도(기대 부정)”와 같이 有標性에 따른 연결어미의 配列 順序를 선정하였다. 韓國語教材 5種 30卷을 대상으로 연결어미의 배열 순서를 추출해 有標性에 기반한 연결어미의 배열순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건 관계의 연결어미와 인과 관계의 연결어미를 배열하는 순서 등 여러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 核心語 : 連結語尾, 有標性, 意味 關係, 配列順序, 韓國語教育, 韓國語教材

I. 緒 論

이 論文에서는 韓國語教材에서 連結語尾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배열순서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連

結語尾의 일부를 대상으로 意味 關係를 有標性¹⁾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의미 간의 關聯性을 검증할 것이며, 나아가 有標性²⁾에 의해 분화되는 連結語尾의 의미 관계가 韓國語教育에서 連結語尾를 배열하는 여러 基準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連結語尾를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韓國語教材의 連結語尾 배열순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5개 대학의 韓國語教育機關에서 출간한 韓國語教材 5種 30卷의 교재를 대상으로 連結語尾의 배열순서를 살펴서 連結語尾의 의미와 配列 段階(初級, 中級, 高級)를 파악하고 각 連結語尾의 배열이 어떤 順序의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5종의 교재에서 나타나는 배열 양상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분석하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한국어교재를 분석한 결과는 有標性을 기준으로 한 連結語尾의 의미 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檢證할 것이다. 한국어교재의 連結語尾 배열순서와 有標性에 의한 連結語尾의 분화 양상이 적절하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連結語尾 교육의 효과적인 순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³⁾

II. 有標性에 따른 韓國語 連結語尾의 意味 關係

1. 非依存 關係에 속하는 連結語尾

連結語尾에 의해 관련을 맺는 두 사건은 특정한 關係를 가진다. 時間의 선

1) 한국어 連結語尾의 의미 관계와 의미 구조를 有標性의 관점에서 논의한 것으로 장경희(1995)가 있다. 이 논문도 기본적인 관점은 장경희(1995)에 기대고 있다.

2) ‘군인’이라는 말은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을 포함하는 영역을 가지는데, 군인이 주로 남자인 실제 세계에서 여자 군인은 有標性을 지니며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군인 영역의 일부인 여자 군인을 지칭하는 ‘여군’이라는 말이 생겨난다. 그러나 무표적인 남자 군인을 나타내는 말은 생겨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게 되고, 남자 군인은 상위어인 ‘군인’으로만 불리게 된다. 有標性으로 어휘가 하위 범주화 될 때는 일반적인 영역이 빈칸이 되고 유표적인 영역에 어휘가 존재하게 된다. 連結語尾의 의미 관계에서도 이러한 有標性이 작동할 것으로 판단한다.

3)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有標性 markedness은 언어학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후 관계일 수도, 한 空間에 같이 있는 관계일 수도, 어떤 사건이 原因이고 다른 사건이 結果가 되는 관계일 수도 있다. 사건 간의 관계를 文章에서 明示的으로 드러내는 것이 連結語尾의 본질적 기능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정한 連結語尾를 이용하여 관계를 표시한다. 連結語尾의 의미가 그 본연의 고유한 것인지, 사건 간의 관계에 의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특정 連結語尾를 사용하여 사건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 (1) ㄱ.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졌다.
 ㄴ. 비가 왔고 날씨가 추워졌다.

두 사건의 관계를 話者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連結語尾의 사용 양상은 달라진다. 둘을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고 인과의 ‘-어서’를 쓸 수 있고(1ㄱ), 두 사건을 ‘날씨’라는 동일한 範疇에 속하는 同等한 사건으로 보면 ‘-고’를 쓸 수도 있다(1ㄴ). 즉 (1ㄱ)은 후행절 사건의 발생이 선행절의 사건 발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1ㄴ)은 후행절의 사건이 선행절의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2) ㄱ. 승객들이 내리고 버스가 출발했다.
 ㄴ. 승객들이 내리자마자 버스가 출발했다.
 ㄷ. 그는 버스를 운전하면서 음악을 들었다.
 ㄹ. 밖은 추웠지만 버스 안은 따뜻했다.
 ㅁ. 버스 안은 따뜻했으나 밖은 추웠다.

두 사건은 발생 ‘시간’과 관련되는가 하면, 발생 ‘공간’의 隣接性과도 관련이 있다. (2ㄱ, ㄴ)은 선행절 사건이 발생하고 후행절의 사건이 나중에 발생한다. 둘의 차이는 시간적인 인접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두 사건 역시 (1ㄴ)의 경우처럼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아니다. 승객들이 내리는 것이 버스가 출발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그것을 단순한 사건 발생의 선후 관계로 표시한 것이다.

(2ㄷ)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본 것이다. 사건 발생 시간의 겹침이 있기는 하지만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시간’을 媒介로 두 사건이 관계를 맺을 경우 각 사건의 발생은 依存性을 가지지 않고 個別的이고 獨立的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2ㄹ, ㄱ)의 사건 간의 관계는 대립적이다. 버스 안과 밖 공간이 인접성에 의해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건의 발생은 개별적이고 非依存的이다. 버스 안이 따뜻한 것과 밖이 추운 것은 서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다.

장경희(1996:153)에서는 한국어의 連結語尾로 표현되는 사건 사이의 관계는 모두 ‘相關의 事件 關係’로 보고 하위 부류로 共存 關係와 排他的 關係를 제시하고 있다. 공존 관계는 두 사건이 동시에 사실이 될 수 있는 관계이며, 공존 관계로 표현되는 사건은 實存 事件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假定世界, 사건과 믿음(생각) 등의 관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배타적 관계는 접촉되는 사건 가운데 어느 한 사건이 사실이면 다른 사건은 거짓이 되는 관계로 두 사건이 동시에 사실일 수 없는 관계라고 하였다.

(3) ㄱ.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ㄴ. 그가 오거나 말거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ㄷ. 부장이 오든지 과장이 오든지 누군가는 회의에 오겠지.

‘-든지’, ‘-거나’는 선택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선택의 의미는 文脈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3ㄱ),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3ㄴ, ㄷ). ‘-든지’와 ‘-거나’의 의미는 ‘선택’이라기보다는 다른 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을 보면, 한 사건이 事實性을 가지면 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관계에 있다. 두 사건은 排他的 關係에 있는 것이다. 連結語尾가 나타내는 사건 간의 관계는 대체로 공존 관계에 속하며, 배타적 관계에 속하는 경우는 (3)에 보인 連結語尾로 제한된다. 이제 공존 관계에 있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連結語尾들이 有標性에 의해 어떻게 分化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連結語尾에 의해 실현되는 공존 관계는 同等한 價値를 가지지 않는다. (1ㄱ)의 ‘-어서’에 의해 실현된 사건은 공존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고 후행절 사

건이 선행절 사건에 의존한다. ‘-고, -자마자, -(으)면서, -지만, -(으)나’에 의해 실현된 두 사건은 공존 관계에 있지만 사건 발생에 의존성이 없다. 공존 관계가 의존 관계와 비의존 관계로 下位分類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의존 관계에는 시간 관계와 대립 관계가 있다. ‘-고, -자마자, -(으)면서’ 등이 시간 관계를 나타내며 ‘-지만, -(으)나’가 대립 관계를 나타낸다. 시간 관계는 다시 ‘-고, -자마자’가 繼起的 關係를 나타내고 ‘-(으)면서’가 同時的 關係를 나타낸다.

- (4) ㄱ. 채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ㄴ. 지금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있으며} 아빠는 청소를 하고 있다.
 ㄷ. 채은이는 책을 보면서 감상문을 쓰고 있다.

‘-고’가 계기적 관계에도, 동시적 관계에도 쓰인다. ‘-(으)며’ 역시 동시적 관계에 쓰인다.

- (5) ㄱ. 채은이는 키가 {크지만, 크나, 크고} 예나는 키가 작다.
 ㄴ. 한국은 북반구에 {있지만, 있으나, 있고} 호주는 남반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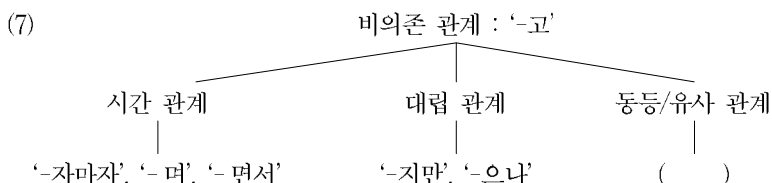
대립 관계의 連結語尾는 ‘-지만, -(으)나’이다. 그런데 대립 관계는 ‘-고’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고’는 비의존 관계에 속하는 계기적 관계, 동시적 관계, 대립 관계에 두루 쓰인다.

- (6) ㄱ. 지난주에 만난 맞선남은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고 직업이 안정적이었다.
 ㄴ. 주말에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었다.
 ㄷ. 채은이는 지난 방학에 유럽도 갔다 왔고 미국도 갔다 왔다.

(6)의 ‘-고’는 시간, 대립 관계와는 다른 意味 關係를 실현하고 있다. 비의존 관계에 있는 사건이 ‘-고’에 의해 연결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들은 특정한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6ㄱ)의 사건들은 지난주에 만난 맞선남의 장점에 속하는 구체적인 특성들이고 (6ㄴ)은 지난 주말에 내가 한 일, (6ㄷ)은

외국 여행이라는 공통의 범주에 속하는 사건들이다. 즉 동일 범주에 속하는 동등한 사건, 유사한 사건인 것이다.

(4)~(6)을 통해 連結語尾에 의해서 실현되는 사건의 비의존 관계를 살펴 보았다. ‘-고, -자마자, -며, -(으)면서’가 시간 관계를, ‘-고, -지만, -(으)나’가 대립 관계를, ‘-고’가 ‘동등/유사 관계’의 실현에 쓰이는데, ‘-고’는 비의존 관계의 전 영역에 걸쳐 쓰인다. 장경희(1996:161-164)에서는 비의존 관계에 속하는 連結語尾들의 意味 構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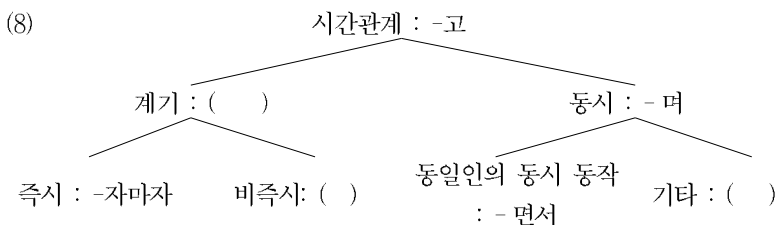


(7)에서 ‘-고’는 上位 範疇로서 비의존 관계를 나타낸다. 시간의 계기적 관계나 동시적 관계가 ‘-고’로 표현되고, 대립 관계나 동등/유사 관계가 ‘-고’로 표현되는 것도 ‘-고’가 비의존 관계의 상위 범주이기 때문이다. 상위 범주로서의 비의존 관계와 하위 범주로서의 시간, 대립, 동등/유사 관계는 有標性에 의한 分化로 설명될 수 있다. ‘-고’는 일반적인 계기적 관계뿐만 아니라 卽刻的인 繼起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자마자’는 즉각적인 계기만을 나타낼 뿐 시간의 經過가 있는 계기적 관계는 나타낼 수 없다. ‘채은이는 졸업하자마자 6개월 후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와 같은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다.

동시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고’와 ‘-며’, ‘-(으)면서’가 나타내는 樣相은 다르다. ‘-고’는 동사, 형용사에 두루 붙어 사건의 동시적 발생을 표현할 수 있지만, ‘-며’는 ‘학교는 크며 깨끗하다’와 같이 잘 쓰이지 않아 실현하는 양상의 幅이 작다. 한편, ‘-(으)면서’는 동시적인 사건 중에 동일 주어의 동시적인 진행 동작에 쓰일 경우에 한해서 同時性을 실현하기 때문에 ‘-고’에 비해 제한된 쓰임을 갖는다.

비의존 관계에 속하는 시간 관계의 連結語尾는 즉각적인 계기, 동일 주어의 동시적인 동작 등과 같이 특정한 시간 관계에 쓰이는 어미가 有標性에 의

해 분화된 것이며 일반적인 영역은 上位 範疇의 ‘-고’가 실현하는 것이다. 대립 관계의 連結語尾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으나’, ‘-지만’이 有標性에 의해 분화된 것이고, 동등/유사 관계의 連結語尾는 有標性에 의한 분화 없이 상위 범주의 ‘-고’가 그대로 쓰인다.



(8)은 장경희(1995:164)에서 제시한 비의존 관계 중 시간 관계에 속하는 連結語尾의 의미 구조이다. 괄호로 표시된 빈칸은 無標的인 영역으로서 해당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連結語尾가 발달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 빈칸은 상위 범주의 ‘-고’가 실현하는 영역이 된다.

2. 依存 關係에 속하는 連結語尾

사건 간의 의존 관계를 실현하는 連結語尾로는 ‘조건’의 ‘-(으)면’, ‘양보’의 ‘-어도’, ‘인과’의 ‘-어서’ 등이 있다. 이 절에서는 조건, 양보⁴⁾, 인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連結語尾들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有標性的의 관점에서 意味 關係를 논의한다. 윤평현(1989:50-55)에서는 양보 관계를 조건 관계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9) ㄱ. 바람이 {불터라도, 불지라도} 시원하지 않겠다.

ㄴ. 바람이 불면 시원할 것이다.

4) 3장에서는 ‘양보’를 ‘기대 부정’으로 고쳐 쓸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양보’를 ‘기대 부정’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희정·홍윤기(2010)을 참고.

(9ㄱ)의 讓步 連結語尾가 쓰인 문장은 항상 (9ㄴ)의 條件 連結語尾가 쓰인 문장을 전제한다고 보았다. 조건 연결어미가 쓰인 후행절을 부정하면 讓步의 관계로 해석되는 것이다. 즉 양보 관계는 조건 관계 법칙에 어긋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 주목해서 조건 관계와 양보 관계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 (10) ㄱ. 여기는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
 ㄴ. 여기는 바람이 불면 오히려 덥다.

(10ㄱ)은 자연의 普遍的인 法則에 일치하고, (10ㄴ)은 例外的인 경우이다. 보편적인 경우나 예외적인 경우 모두 ‘-(으)면’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 (11) ㄱ. 채은이는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면 한다.
 ㄴ. 채은이는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한다.

(11)은 개인의 行動 方式이나 習慣을 보여준다. 서로 상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으)면’은 자연스럽다. 사건 간의 관련성을 보면, 두 사건이 規則的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채은이는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오지 말라고 하면 온다.’와 같은 문장은 행위를 한 번 보고서는 發話할 수 없다. 여러 차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규칙적인 행위를 경험한 후에야 가능하다. 이는 (10)도 마찬가지이다. ‘-(으)면’은 보편적이든 예외적이든 두 사건의 발생이 規則性을 띠면 실현될 수 있다. 양보 관계를 조건 관계 법칙에 어긋나는 관계라고 할 때, 조건 관계의 예외 규칙과 양보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12) ㄱ. 부산은 바람이 불면 오히려 덥다.
 ㄴ. 부산은 바람이 불어도 덥다.

(12ㄱ)은 예외적이지만 두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적인 조건 관계에 대한 표현인 반면, (12ㄴ)은 보편적인 법칙을 어겼음에 焦點을 둔 표현이다.

즉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으)면’은 사건 사이의 관계를 普遍과 例外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規則的인 관계를 실현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반면 양보의 ‘-어도’는 두 사건 사이의 例外的인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으)면’은 조건 관계 중 보편적 조건 관계와 예외적 조건 관계를 두루 실현한다. ‘-어도’는 조건 관계의 예외적 범칙에 해당하는 영역이 有標性에 의해 分化된 것이며, 조건 관계의 보편적 범칙에 해당하는 영역은 ‘-(으)면’에 의해 실현될 뿐, 다른 어미로 分化되지 않는다. 보편적 범칙은 一般的이고 無標的인데, 예외적 현상은 特殊하고 有標的이므로 양보 관계는 有標性에 의해 조건 관계에서 分化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조건 관계와 인과 관계의 관련성을 검토해보자.

(13) 채은 : 그 방은 따뜻하니?

예진 : ㄱ. 불을 때서 그 방은 따뜻해.

ㄴ. 불을 때면 그 방은 따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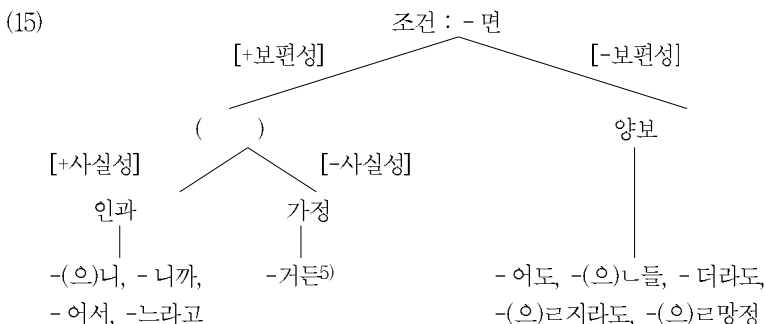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인과나 조건 관계를 사용해 답할 수 있다. 조건 관계의 ‘-(으)면’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점을 (13)에도 적용할 수 있다. (13ㄴ)은 두 사건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反復的으로 일어난 적이 있으며, 이를 하나의 규칙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표현한 것이다. 즉 현장의 두 사건 관계를 포함해 일종의 인과 법칙처럼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 (13ㄱ)의 ‘-어서’가 쓰인 경우는 현장의 두 사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다.

(14) 채은 : 예나 재는 가라니까 가지를 않네. 왜 저러지?

예진 : 가래서 안 가는거야. 재는 가라면 안 가. 가지 말라고 불잡아야 가지.

(14)를 보면, 현장에서 하나의 사건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현재와 이전 상황의 사건도 포함하여 특정인의 행동 습관이나 행동 양상을 언급하고 있다. ‘-니까’, ‘-어서’가 특정한 一回性 사건 관계를 나타내는 데 비

해 ‘-(으)면’은 사건 관계를 一般化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조건 관계와 양보 관계, 조건 관계와 인과 관계의 관련성을 장경희(1995:170)에서는 다음과 같은 意味 構造로 圖式化하였다.



Ⅲ. 韓國語教材의 連結語尾 配列 樣相

이 장에서는 韓國語教材⁶⁾를 분석하여 連結語尾의 배열 양상을 확인한다. 連結語尾 뿐만 아니라 초,중급 단계의 복합형식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형태까지 포함하여 항목을 추출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문법 설명을 참고하여 意味를 밝힌다.⁷⁾ <表 1>에서 각 교재에 제시된 連結語尾와 해당 과를 제시

5) ‘네가 가라고 하거든 나도 가겠다.’는 어색한 데 비해, ‘네가 가라고 하면 나도 가겠다.’는 자연스럽다. ‘-거든’은 비현실적인 가상의 세계가 아닌 가능 세계에서 만 쓰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자의 의도 결정의 조건에 한정되어 쓰일 수 있다. 화자의 의도 결정의 조건에는 ‘-거든’이 쓰일 수 없다.

6) 教材는 가나다順으로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재 6권, 고려대학교의 한국어교재 6권, 성균관대학교의 한국어교재 6권, 연세대학교의 한국어교재 6권, 이화여자대학교의 한국어교재 6권 등 총 30권이다.

7) 유표성에 기반한 연결어미의 의미 관계에 따른 배열 양상과 비교를 고려할 때 高級 단계의 연결어미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대상을 위주로 初級, 中級 단계의 연결어미와 연결표현을 제시하도록 한다. <表 1>은 각 교재의 연결어미와 연결표현 모두를 제시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하였고, 連結語尾의 의미는 아래에서 따로 제시하도록 한다. 교재 표시는 A, B, C, D, E로 한다.

A		B		C		D		E	
연결어미	배열순	연결어미	배열순	연결어미	배열순	연결어미	배열순	연결어미	배열순
-고	초2/7과	-고	1/8과	-고	1/6과	-고(동등)	1/3과	-(으)ㄴ 후에	1/9과
-어서(계기)	초2/8과	-어서(인과)	1/8과	-지만	1/8과	-고(계기)	1/5과	-어서	1/10과
-(으)니까	초2/9과	-(으)ㄴ 후에	1/15과	-고	1/10과	-지만	1/6과	-고	1/12과
-지만	초2/11과	-기 전에	1/15과	-(으)니까	1/13과	-어서(계기)	1/7과	-(으)면	1/12과
-거나	초2/12과	-기 때문에	2/1과	-어야	1/14과	-어서(인과)	1/7과	-고	1/14과
-어서(인과)	초2/13과	-(으)ㄴ 때	2/2과	-(으)면	1/15과	-니까(인과)	1/7과	-기 전에	1/14과
-기 때문에	초2/14과	-(으)니까	2/4과	-어서(계기)	1/16과	-(으)면	1/8과	-(으)ㄴ 때	2/2과
-(으)려고	초2/19과	-어서(계기)	2/5과	-어서(인과)	1/18과	-(으)ㄴ 후에	1/9과	-지만	2/2과
-(으)ㄴ/는데	초2/19과	-(으)면	2/5과	-(으)면서	2/4과	-(으)ㄴ/는데(대립)	1/9과	-기 때문에	2/3과
-(으)ㄴ 때	초2/21과	-지만	2/5과	-거나	2/4과	-기 전에	1/10과	-(으)니까	2/5과
-(으)ㄴ 후에	초2/21과	-(으)ㄴ/는데(대립)	2/8과	-기 전에	2/6과	-을 때	1/10과	-어서	2/6과
-(으)면	초2/22과	-(으)면서(동시)	2/9과	-(으)ㄴ 후에	2/7과	-(으)ㄴ/는데(배경)	2/1과	-거나	2/6과
-다가	초2/22과	-거나	2/10과	-고 나서	2/8과	-기 때문에	2/1과	-(으)ㄴ 덕분에	2/7과
-기 전에	초2/23과	-(으)ㄴ/는데(배경)	2/11과	-는데	2/10과	-어도	2/3과	-어서 그런지	2/7과
-느라고	중1/1과	-어도	3/1과	-기 때문에	2/14과	-(으)니까	2/3과	-(으)ㄴ/는데	2/9과
-(으)며	중1/1과	-다가	3/2과	-어도	2/14과	-다가	2/5과	-(으)면서	2/9과
-(으)면서	중1/2과	-어서 그런지	3/7과	-자마자	2/16과	-거나	2/6과	-고 나서	2/9과
-기는 하지만	중1/2과	-자마자	3/8과	-어서 그런지	3/1과	-어서 그런지	2/9과	-다가	2/10과
-어도	중1/3과	-는 바람에	3/11과	-길래	3/20과	-(으)면서	2/10과	-자마자	2/12과
-자마자	중1/3과	-느라고	3/12과	-는 바람에	3/5과	-자마자	3/1과	-어야	3/1과
-는 바람에	중1/4과	-(으)며	4/1과	-(으)ㄴ 다음에	3/7과	-어야	3/3과	-어도	3/4과
-(으)므로	중1/6과	-(으)나	4/1과	-거든	3/11과	-고서	3/4과	-는 바람에	3/7과
-더라도	중1/8과	-길래	4/2과	-는 통에	4/2과	-거든	3/5과	-(으)며	4/2과
-고 나서	중1/8과	-더라도	4/2과	-어서 그런지	4/6과	-고 나서	3/6과	-더라도	4/3과
-는 한	중1/8과	-(으)면서(대립)	4/13과	-은 탓에	4/14과	-는 바람에	4/8과	-길래	4/10과
-거든	중2/1과	-든지	4/15과	-은 덕분에	4/14과				
-어서 그런지	중2/1과			-자	4/18과				
-어야	중2/2과								
-(으)ㄴ 탓에	중2/3과								
-길래	중2/4과								
-든지	중2/4과								
-(으)ㄴ 데도 불구하고	중2/4과								
-(으)ㄴ 지라도	중2/5과								
-는 통에	중2/7과								
-(으)ㄴ 들	중2/8과								

<表 1> 韓國語敎材의 初級, 中級 段階의 連結語尾 配列 樣相

<表 1>을 보면, 교재에 따라 배열된 連結語尾의 수가 차이가 있는데, 敎育內容에 포함할 각 단원별 主題나 課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위와 같은 不均衡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連結語尾의 의미와 함께 각 교재별로 連結語尾가 제시된 양상을 보이고 특징을 분석한다.

(16) A 한국어교재의 연결어미 배열순서

[초급] -고(동등/유사) ⇒ -어서(계기) ⇒ -(으)니까(인과) ⇒ -지만(대립) ⇒ -거나(선택) ⇒ -어서(인과) ⇒ -기 때문에(인과) ⇒ -(으)려고(의도) ⇒ -(으)ㄴ데(배경) ⇒ -(으)ㄴ 때(발생 시간) ⇒ -(으)ㄴ 후에 ⇒ -(으)면(조건) ⇒ -다가(전환) ⇒ -기 전에(계기) ⇒ **[중급]** ⇒ -느라고(인과) ⇒ -(으)며(동등/유사) ⇒ -(으)면서(동시) ⇒ -기는 하지만(대립) ⇒ -어도(기대 부정) ⇒ -자마자(즉각적 계기) ⇒ -는 바람에(인과) ⇒ -(으)므로(인과) ⇒ -더라도(기대 부정) ⇒ -고 나서(계기) ⇒ -는 한(조건) ⇒ -거든(조건) ⇒ -어서 그런지(인과) ⇒ -어야(조건) ⇒ -(으)ㄴ 탓에(인과) ⇒ -길래(인과) ⇒ -든지(선택) ⇒ -(으)ㄴ데도 불구하고(기대 부정) ⇒ -(으)ㄴ지라도(기대 부정) ⇒ -는 통에(인과) ⇒ -(으)ㄴ들(기대 부정)

A 교재는 초, 중급에 집중적으로 문법 항목이 배열되어 있으며, 고급에는 인용 표현, 가정 표현, 명사화 내포문, 상대 높임법 등의 範疇 중심의 문법 요소를 배열한다.⁸⁾ 배열 양상에서 흥미로운 점은 ‘동등/유사’의 연결어미 ‘-고’는 있으나 ‘계기’의 ‘-고’는 제시되지 않고 초급 2 워크북의 연습 문제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교실 현장에서 ‘계기’를 교수할 수는 있겠으나 교재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特異하다. 초급의 연결어미의 의미로는 ‘동등/유사’, ‘계기’, ‘인과’, ‘대립’, ‘선택’, ‘의도’, ‘배경’, ‘발생 시간’, ‘전환’, ‘조건’ 등이 있다. ‘인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2개(-어서, -니까)이고, 계기의 의미로 쓰인 ‘-고’를 워크북을 통해 학습한다고 보면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4개(-어서, -고, -(으)ㄴ 후에, -기 전에)이다. 중급에서 눈에 띄

8) 고급 단계에서의 範疇 중심의 문법 학습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방성원(2003)을 참고.

는 것은 ‘기대 부정⁹⁾’의 연결어미가 많다는 점인데, ‘-어도, -더라도, -(으)ㄴ데도 불구하고, -(으)ㄴ들과 같이 4개가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인과’를 나타내는 항목도 ‘-느라고, -는 바람에, -으므로, -어서 그런지, -(으)ㄴ 탓에, -는 통에’ 등으로 여럿 배열되어 있다. 한편, 초급에서 ‘동등/유사’의 관계를 가진 ‘-고’를 배열했다면 중급에서는 ‘-(으)며’를 배열하고, 초급에서 ‘조건’ 관계의 ‘-(으)면’을 배열하면 중급에서는 ‘-어야’를 배열하는 것처럼 의미가 같지만 제약이 있는 연결어미를 段階를 구분하여 배열하고 있다.

(17) B 한국어교재의 연결어미 배열순서

[초급] -고(동등/유사) ⇒ -어서(인과) ⇒ -(으)ㄴ 후에(계기) ⇒ -기 전에(계기) ⇒ -기 때문에(인과) ⇒ -(으)ㄴ 때(발생 시간) ⇒ -(으)ㄴ니까(인과) ⇒ -(으)면(조건) ⇒ -지만(대립) ⇒ -어서(계기) ⇒ -(으)ㄴ데(대립) ⇒ -(으)면서(동시) ⇒ -거나(선택) ⇒ -(으)ㄴ데(배경) ⇒

[중급] -어도(기대 부정) ⇒ -다가(전환) ⇒ -어서 그런지(인과) ⇒ -자마자(즉각적 계기) ⇒ -는 바람에(인과) ⇒ -느라고(인과) ⇒ -(으)며(동등/유사관계) ⇒ -(으)ㄴ(대립) ⇒ -길래(인과) ⇒ -더라도(기대 부정) ⇒ -(으)면서(대립) ⇒ -든지(선택)

B 교재에서도 ‘동등/유사’의 의미로 쓰인 ‘-고’가 두 가지로 해석될 餘地가 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요.’가 ‘날씨’의 특성을 동등 관계로 나타낸 것이라면, ‘어제는 숙제를 하고 일찍 잤어요.’는 ‘계기’로 파악되는 문장이다. 계기의 ‘-고’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의 두 의미 관계를 함께 교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급의 연결어미의 의미는 ‘동등/유사’, ‘인과’, ‘조건’, ‘대립’, ‘계기’, ‘발생 시간’, ‘동시’, ‘선택’, ‘배경’이 있다. ‘계기’의 연결어미가 4개(-고, -어서, -(으)ㄴ 후에, -기 전에)이고, ‘인과’의 어미는 2개(-어서, -니까), ‘대립’의 어미도 2개(-지만, -(으)ㄴ데)이다. ‘기대 부정’의 연결어미는 중급에 처음 제시되어 있으며, 인과의 연결어미가 중급에 여럿 배열되어 있다. 초급에서 학습한 연결어미의 사건 관계와 유사한 연결어미를 중급에서

9) 서희정·홍윤기(2010:191)에서는 ‘양보’는 한국어교육용 문법 용어로서 갖추어야 할 의미의 함축성과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의 용이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용어라고 보았다.

順次的으로 배열하고 있는 점은 A 교재와 같다.

(18) C 한국어교재의 연결어미 배열순서

【초급】 - 고(동등/유사) ⇒ - 지만(대립) ⇒ - 고(계기) ⇒ -(으)니까(인과) ⇒ - 어야(조건) ⇒ -(으)면(조건) ⇒ - 어서(계기) ⇒ - 어서(인과) ⇒ -(으)면서(동시) ⇒ - 거나(선택) ⇒ -기 전에(계기) ⇒ -(으)ㄴ 후에(계기) ⇒ -고 나서(계기) ⇒ -는데(배경) ⇒ -기 때문에(인과) ⇒ - 어도(기대 부정) ⇒ - 자마자(즉각적 계기) ⇒ **【중급】** - 어서 그런지(인과) ⇒ - 길래(인과) ⇒ -는 바람에(인과) ⇒ -(으)ㄴ 다음에(계기) ⇒ - 거든(조건) ⇒ -는 통에(인과) ⇒ -(으)ㄴ 탓에(인과) ⇒ -(으)ㄴ 덕분에(인과) ⇒ -자(즉각적 계기)

C 교재는 주로 초, 중급에 연결어미를 배열하고 있으며, 앞의 두 교재와는 달리 ‘동등/유사’ 관계의 ‘-고’와 ‘계기’의 ‘-고’를 時差를 두고 배열하였다. 초급에서 학습하는 표현이 다소 많은 편이며,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과 ‘-어야’를 초급에 배열한 것은 위 교재와 다르다. 초급에서는 ‘동등, 대립, 계기, 인과, 조건, 동시, 선택, 기대 부정, 즉각적 계기’의 연결어미를 배열하고 있다. 중급에는 인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 여럿 배열되어 있어 다른 교재와 類似하다. C 교재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대 부정’의 ‘-어도’를 초급에 배열하고 중급에서 다시 배열한다든지, 대립 관계의 ‘-지만’을 초급에서 배열하고 중급에서 다시 배열하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교재에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19) D 한국어교재의 연결어미 배열순서

【초급】 - 고(동등/유사) ⇒ - 고(계기) ⇒ - 지만(대립) ⇒ - 어서(계기) ⇒ - 어서(인과) ⇒ -(으)니까(인과) ⇒ -(으)면(조건) ⇒ -(으)ㄴ 후에(계기) ⇒ -(으)ㄴ/는데(대립) ⇒ -기 전에(계기) ⇒ -(으)ㄴ 때(발생 시간) ⇒ -(으)ㄴ데(배경) ⇒ -기 때문에(인과) ⇒ - 어도(기대 부정) ⇒ - 다(가(전환) ⇒ - 거나(선택) ⇒ - 어서 그런지(인과) ⇒ -(으)면서(동시) ⇒ **【중급】** -자마자(즉각적 계기) ⇒ - 어야(조건) ⇒ - 고(계기) ⇒ - 거든(조건) ⇒ -고 나서(계기) ⇒ -는 바람에(인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D 교재에 가장 많은 文法 項目이 배열되어 있다. 초급에서 ‘동등, 계기, 대립, 인과, 조건, 배경, 기대 부정, 전환, 선택, 동시, 발생 시간’ 등의 어미를 제시하고 있다. 초급에서 ‘-고’를 두 개의 사건 관계로 구분한 것은 C 교재와 유사하나, ‘-(으)ㄴ데’의 ‘대립’과 ‘배경’ 관계를 바로 이어 배열한 것은 타 교재에서 볼 수 없는 양상이다. 초급에서 많은 연결어미를 배열하는데, 계기의 연결어미는 4개(-고, -어서, -(으)ㄴ 후에, -기 전에), 인과의 연결어미는 3개(-어서, -(으)니까, -어서 그런지)를 제시하고 있다.

(20) E 한국어교재의 연결어미 배열순서

【초급】 -(으)ㄴ 후에(계기) ⇒ -아/어서(인과) ⇒ -고(동등/유사) ⇒ -(으)면(조건) ⇒ -고(계기) ⇒ -기 전에(계기) ⇒ -(으)ㄴ 때(발생 시간) ⇒ -지만(대립) ⇒ -기 때문에(인과) ⇒ -(으)니까(인과) ⇒ -어서(계기) ⇒ -거나(선택) ⇒ -(으)ㄴ 덕분에(인과) ⇒ -어서 그런지(인과) ⇒ -(으)ㄴ 데(배경) ⇒ -(으)면서(동시) ⇒ -고 나서(계기) ⇒ -다가(전환) ⇒ -자마자(즉각적 계기) ⇒ **【중급】** -어아(조건) ⇒ -어도(기대 부정) ⇒ -는 바람에(인과) ⇒ -(으)며(동등/유사관계) ⇒ -더라도(기대 부정) ⇒ -길래(인과)

E 교재 역시 초급에서 많은 연결어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계기, 인과, 동등, 조건, 발생 시간, 대립, 선택, 배경, 동시, 전환, 즉각적 계기’ 등이 배열되어 있다. 특히 초급에서 인과 관계가 5개(-어서, -기 때문에, -(으)니까, -(으)ㄴ 덕분에, -어서 그런지)나 배열된 것은 타 교재와 다른 점이다. 중급에서 기대 부정의 연결어미가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과의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들도 배열되어 있다. 각 교재에 동일 항목이 배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교재에 따라 특정 연결어미가 초급 또는 중급에 배열되기도 하는 등 배열의 양상이 一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배열의 순서 역시 敎材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有標性에 基盤한 連結語尾 配列順序와 韓國語教材의 連結語尾 配列順序 比較 分析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비의존 관계 ‘동등/유사’ 관계, ‘대립’ 관계, ‘시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有標性의 양상과 의존 관계에 속하는 ‘조건’ 관계와 ‘기대 부정’ 관계, ‘조건’ 관계와 ‘인과’ 관계에 작동하는 有標性의 양상이 한국어교재의 해당 連結語尾들의 배열 양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¹⁰⁾

우선 한국어교재의 문법 항목의 배열 방법이나 순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해영(1998:419)에서는 문법 항목의 배열 기준으로 난이도, 빈도수, 기능 또는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고, 김유정(1998:30)에서는 사용 빈도,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의 기대 문법을 그 기준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제열(2001:110)에서는 난이도와 일반화의 가능성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공통으로 제안한 文法 項目의 배열 기준 중 하나는 ‘難易度’이다. 그런데 외국인 학습자들이 文法 項目의 形態, 意味, 機能, 話用的인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을 생각하면 교재 개발자나 敎授者들이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서나 사전에서 문법 항목의 특징을 기술하여 교수, 학습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난이도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단계별로 특정 문법 항목의 어떤 용법을 익히는 것이 적절한지를 지침으로 제공하여야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더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해영(1998)과 김유정(1998)에서 제안하고 있는 頻度數인데, 외국인 학습자가 접하는 여러 언어 환경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문법 항목을 우선 배열함을 의미한다. 頻度數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빈도를 추출할 만한 충분한 자료

10) 5種의 韓國語教材에 제시된 連結語尾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連結語尾의 의미 관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전제되어야 교재에 제시된 連結語尾를 두루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향후 連結語尾의 의미 관계를 확대 분석하여 한국어교재의 連結語尾 배열 양상 전반을 검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 축적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언어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말뭉치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빈도수 추출도 의미가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제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빈도수 추출을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가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후행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기준은 一般化 可能性이다. 김유정(1998:32)에서는 가장 無標의이고 그것을 학습했을 때 波及 또는 應用 效果가 큰 것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하였다. 김제열(2001:111)에서는 先修 學習 效果가 커 다른 문법 요소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한다는 기준이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김유정(1998)과 김제열(2001)에서 제시한 일반화 가능성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有標性의 기준과 관련이 있다.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군으로 묶이는 連結語尾의 無標의인 意味 關係가 상위 범주로서 일반적이며, 다른 의미 관계는 이러한 상위범주에 有標性이 작동함으로써 하위분류된다. 하지만 두 연구의 제안과 이 논문의 관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두 연구에서는 선수 학습의 효과가 큰 것을 우선 학습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선수 학습의 효과가 큰 것인지, 먼저 배열하는 문법항목과 나중에 배열하는 문법항목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김제열(2001:117~119)에서 제시한 초급 1단계의 배열 방안을 보면, ‘-(으)면, -고, -어서(게기), -(으)니까, -어서(인과), -지만, -은/는데’ 등의 連結語尾를 제시하고, 從屬의 連結語尾보다 對等的 連結語尾를 먼저 배열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학습자의 學習 便宜性, 誤謬에 대한 對處, 관련된 文法項目 考慮 등을 고려해 ‘-고’(나열)¹¹⁾ ⇒ ‘-고’(게기) ⇒ ‘-어서’(게기) ⇒ ‘-어서’(인과) ⇒ ‘-(으)니까’(인과) ⇒ ‘-(으)면’(조건) ⇒ ‘-은/는데’(상황/배경)와 같은 배열 순서를 제시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위와 같은 요소들을

11) 김제열(2001)에서는 이때의 ‘-고’를 ‘나열’의 의미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동등/유사’ 관계로 본다. ‘-고’가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그는 옷이고 신발이고 가방이고 할 것 없이 필요가 없는 것은 모두 버리고 귀국했다.’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쓰이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는 장경희(1995)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고려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 요소들은 교육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可變의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요소들을 중시하다 보면 연결어미의 의미 관계 간의 緊密性을 놓칠 수도 있다.

連結語尾의 배열순서를 비교 분석하고 連結語尾의 적절한 배열이 어떠한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연결어미의 의미 관계 간에 유표성이 작동한다는 것이 연결어미의 배열 기준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無標的 의미는 의미 관계도 단순하고 그에 따른 文法的 制約도 거의 없어 폭넓은 쓰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어미를 먼저 배열하고 敎授하면 학습자는 특별한 사용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연결어미의 쓰임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有標的 의미를 順次的으로 배열하여 의미의 精巧化에 익숙해지게 하고, 제약 조건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연결어미를 유표성을 기반으로 배열한다고 해서, 유표성이 배열의 絶對基準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고려하는 여러 기준과 더불어 그것이 複合的인 基準의 하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논의하는 것이다.

먼저, 공존 관계의, 특히 비의존 관계에 있는 連結語尾로 ‘-고’(동등/유사), ‘-고’(계기), ‘-자/자마자’(즉각적 계기), ‘-기 전에’(계기), ‘-(으)나 후에’(계기), ‘-(으)면서’(동시), ‘-지만’(대립), ‘-으나’(대립)을 어떻게 배열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는 비의존 관계의 典型的이고 無標的인 연결어미이며, 동등/유사 관계에도 무표적으로 쓰이므로 ‘동등/유사’의 의미를 가진 ‘-고’를 먼저 배열한다. 초급 학습자는 한국어의 문장 구조와 확대 양상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으므로 연결어미를 이용해 문장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학습자가 기능을 明示的으로 이해하고 사용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쉽고, 文法的 制約도 거의 없는 ‘동등/유사’ 관계의 ‘-고’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다. ‘-고’를 학습하여 관련 사건을 연결하고, 사건을 관계 맺게 하는 것이 연결어미의 本質的 機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간 개념이 없는 ‘-고’를 충분히 연습함으로써 연결어미의 기능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계기’의 의미 관계를 配列하는 것이 적절하다. ‘계기’의 ‘-고’는 사건의 흐름에 따른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두 사건 간의 시간의 幅이 긴 것부터 설명하고 점점 시간의 폭을 줄여서 짧은

시간 폭을 가진 사건도 ‘-고’를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즉 ‘계기’의 ‘-고’는 시간의 폭이 어떠한 두 사건이 先後 關係를 가지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기’의 ‘-고’ 다음에는 시간의 폭이 거의 없는 사건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유표적인 ‘-자마자’를 배열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마자’가 ‘-고’와 구분되는 것은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¹²⁾ 學習 負擔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고’를 학습하고 ‘-자마자’를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는 연결어미가 두 사건을 연결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 간의 특별한 關係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으)ㄴ 후에’와 ‘-기 전에’를 배열할 수 있다. 사건 간의 선후 관계에 중심을 두고 두 연결어미를 사용할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으)ㄴ 후에’는 선후행 사건의 제시가 사건 발생 순서와 일치하므로 학습 부담이 적다. 그리고 ‘-기 전에’를 학습하여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 중 특별히 화자가 어떤 사건의 발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으)ㄴ 후에’는 선행 행위를 강요하는 의미가, ‘-기 전에’는 선행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가 강하다.

다음은 ‘-(으)면서’를 배열하는 것이 적절하다.¹³⁾ 이것 역시 시간 관계를 나타내므로 시간 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으)면서’는 同一 主語의 행위가 겹치는 시간 관계를 나타내므로 이 점에 주의한다면 ‘-(으)면서’의 학습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¹⁴⁾

다음으로 배열할 것은 ‘계기’의 ‘-어서’이다. ‘-고, -자마자, -(으)ㄴ 후에, -기 전에, -(으)면서’는 사건의 선후 관계와만 관련된 연결어미이고 사건 간

12) 한국어 연결어미에서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중, ‘-자마자’처럼 선·후행 사건의 특정한 시간 幅을 나타내기 위해 따로 유표화된 연결어미는 없다.

13) ‘-(으)며’ 역시 사건이 겹침을 나타낼 수 있고, 상태의 겹침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으)며’가 ‘-고’로 쉽게 代替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결어미의 배열 단계에서 앞 단계에 둘 필요는 없다.

14) 박진호(2009:183-184)에서도 ‘-(으)면서’가 동시성이라는 특별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割當된 文法 裝置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역시 이 연구에서의 유표성의 개념과 맥이 닿아 있다.

의 관계도 비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어서’는 기본적으로 선행절 사건 이후에 후행절 사건이 이어진다는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책을 사서 집에 갔다.’, ‘생일 선물을 사서 친구를 만났다.’에 쓰인 ‘-어서’는 ‘-고’의 쓰임과 다르지 않다. 한편, 선행절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후행절에 실현됨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다.’, ‘봄나물을 사서 된장찌개를 끓였다.’와 같은 예가 그렇다. 선행절에 특정 장소로의 이동이 있었다면 후행절의 사건은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든지, 선행절에서 특정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후행절에서는 그 물건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계기’의 ‘-어서’가 가진 또 다른 用法이다. 따라서 계기의 ‘-어서’와 다른 시간 관계 연결어미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제열(2001:118)에서도 ‘-고’와 ‘-어서’의 誤謬를 방지하기 위해 ‘-고’를 학습한 이후에 ‘-어서’를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지만’을 배열한다. 사건의 대등한 연결이라는 점에서 ‘-지만’은 ‘동등/유사’ 관계의 ‘-고’와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다. ‘-고’로 문장을 연결하고, 선행절과 후행절에 對立이 도드라지는 사건들을 제시한 후, 그 관계를 이해하게 하면 ‘-지만’은 어렵게 않게 학습할 수 있다. ‘-는데’ 역시 대립 관계를 나타내므로, ‘-지만’과 연계하여 배열하고 교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¹⁵⁾

이상에서 비의존 관계에 있는 연결어미들의 배열순서를 살펴보았는데, 연결어미 ‘-고’는 비의존관계의 上位 範疇로서 동등/유사 관계에 無標적으로 쓰일 뿐 아니라 시간 관계,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도 무표적으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연결어미들을 교수할 때, ‘-고’와의 關聯性을 염두에 두고 문장을 제시하고 사건 간의 관련성을 이끌어 낸다면 연결어미의 교수·학습이 좀 더 원활해질 것이다.

이제 의존 관계에 있는 連結語尾, 즉 ‘조건’의 ‘-(으)면’, ‘인과’의 ‘-어서, -니까’, ‘기대 부정’의 ‘-어도’를 살펴보자. 조건 관계는 무표적인 상위 범주이며 인과 관계는 조건 관계에 비해 사건 간의 관계가 現場性이 강하며,一回

15) 대립 관계의 ‘-(으)나’도 배열할 수 있으나, ‘-(으)나’는 ‘-지만’, ‘-는데’에 비해 사용 빈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擬古적인 쓰임을 가지고 있어 연결어미의 배열 단계에서 앞 단계에 배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的인 관계를 나타내므로 유효성을 가진다. 또한 양보 관계는 조건 관계에 비해 普遍性이 떨어지며, 예외적이고 특수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효성을 띤다. 따라서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으)면’을 먼저 배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습관이나 일상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등을 제시하여 학습하면 ‘-(으)면’을 이용한 사건 간의 연결은 쉽게 학습할 수 있다.¹⁶⁾¹⁷⁾

‘-(으)면’을 배열한 후 ‘원인’의 ‘-어서’를 배열한다. ‘배가 아파요 / 병원에 가요.’와 같은 사건을 제시하고, ‘사람들은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요.’처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어제 선생님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처럼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을 발화하고 학습자 개개인에게도 질문한다. 두 사건 관계의 普遍性과 特殊性, 一般性和 具體性, 그리고 規則性和 現場性을 구분하게 함으로써 인과 관계가 조건 관계에서 유효화된 관계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조건 관계를 고려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연결어미들의 배열순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서’ 다음에는 ‘-(으)니까’를 배열하는 것이 좋다. ‘-어서’와 ‘-(으)니까’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학습하기 때문에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學習者 誤謬를 줄여야 한다. ‘-(으)니까’는 ‘-어서’에 비해 敍法 制約을 가지는 등 쓰임의 제약이 있으므로 ‘-어서’를 배열한 이후 ‘-(으)니까’를 배열한다. 그리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 -(으)ㄴ 덕분에, -(으)ㄴ 탓에, -는 통에, -어서 그런지’ 등의 배열순서도 고려해야 한다. ‘-기 때문에’는 ‘-어서’ 다음에 배열해도 된다. 다만 ‘-는 바람에, -(으)ㄴ 탓에, -는 통에’는 否定的인 결과를 가지는 경우에 쓰이므로 ‘-기 때문에, -어서’와 구별된다. ‘-기 때문에, -어서’가 무표적인 인과 관계에 두루 쓰이는 데 비해, ‘-는 바람에’ 등은 그렇지 않으므로 나중에 배열하는 것이 좋다. ‘-(으)ㄴ 덕분에’와 ‘-는 바람에’류의 배열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

16) 김제열(2001:119)에서도 ‘조건’ 관계는 학습자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문법 항목이라고 보고 있다.

17)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어미로 ‘-거든’이 있다. 하지만 ‘-거든’은 연결어미의 배열에서 앞 순서에 제시하기에는 制約 條件이 많은 어미이다. 따라서 ‘-거든’의 배열은 중급 단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

표성을 가진 표현이기 때문에 ‘-어서’, ‘-기 때문에’ 다음에 배열하면 된다. ‘-어서 그런지’는 인과 관계에 대한 話者의 推測이 들어가므로 ‘-어서’에 비해 유효성이 강하다. ‘-는 바람에’류 다음에 배열하는 것이 적절하다. 화자의 추측은 樣態의 특성을 가지므로 이른 시기에 학습할 경우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조건 관계와 기대 부정 관계의 배열순서를 살펴보자. 조건 관계가 普遍的 규칙을 실현한다면, 기대 부정의 관계는 例外的 규칙을 보여준다. 조건 관계를 먼저 배열하고 기대 부정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건 관계의 普遍性, 一般性, 規則性을 이해한 후라면 기대 부정의 관계가 가지는 例外性도 이해할 수 있다. 조건 관계 뒤에 기대 부정의 관계를 배열하는 것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둘의 관련성을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기대 부정의 연결어미, ‘-어도, -더라도, -(으)ㄴ들, -(으)ㄴ지라도, -(으)ㄴ망정, -(으)ㄴ데도 불구하고’를 배열하는 순서는 교육 내용과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으)면’의 배열과 관련하여 더 고려할 것은 ‘-(으)면’이 쓰이는 意思疏通 狀況이다. 김제열(2001:119)의 논의와 같이 초급에서는 ‘배가 고프는데 식당에 갈까요?’와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갑시다.’가 주로 호응하여 忠告나 提案을 하는 의사소통 상황에 쓰인다. ‘-는데’가 ‘-(으)면’과 유효성으로 관련을 맺지는 않지만 교육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으)면’을 배열한 후에 ‘-는데’를 배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연결어미의 의미 관계 간의 유효성을 고려하여 일부 연결어미의 배열순서를 논의하였다. 동일한 의미 관계를 가진 연결어미들 간의 배열순서는 다른 기준과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해영(1998:421)에서는 課題나 機能이 의사소통 중심의 문법 항목 배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초급 교재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¹⁸⁾ 여러 기준을 고려

18) 이러한 양상은 교재에 따라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로, 계기의 ‘-어서’를 들 수 있다. ‘-어서’는 주로 길 찾기 과제에서 유용한 표현으로 제시된다. 이에 반해, 조건의 ‘-(으)면’은 교재마다 다른 課題나 活動에서 제시된다. 어떤 교재에서는 장소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과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이는 반면, 다른 교재에서는 친구와 약속하기 활동을 하는 데 쓰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으)니까’도 어떤 교재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제시되

하게 되어 연결어미의 배열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有標性에 따라 구분되는 連結語尾들의 의미 관계는 그 기준에 따라 배열순서를 정하고, 과제 해결 등을 위한 連結語尾는 배열순서에서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려할 다른 기준이 있다고 해서 有標的인 連結語尾를 먼저 제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無標的인 것으로부터 有標的인 것으로 배열하되 그 사이에 단원의 핵심 의사소통기능과 과제 해결을 위한 連結語尾가 배열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連結語尾의 배열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1) ① -고(동등/유사) ⇒ ② -고(계기) ⇒ ③ -자마자(즉각적 계기) ⇒ ④ -(으)ㄴ 후에(계기) ⇒ ⑤ -기 전에(계기) ⇒ ⑥ -(으)면서(동시) ⇒ ⑦ -어서(계기) ⇒ ⑧ -지만(대립) ⇒ ⑨ -는데(대립) ⇒ ⑩ -(으)면(조건) ⇒ ⑪ -어서(인과) ⇒ ⑫ -(으)니까(인과) ⇒ ⑬ -(으)ㄴ데(배경) ⇒ ⑭ -기 때문에(인과) ⇒ ⑮ -(으)ㄴ 덕분에(인과) ⇒ ⑯ -는 바람에(인과) ⇒ ⑰ -어서 그런지(인과) ⇒ ⑱ -어도(기대 부정)

(21)의 배열순서를 한국어교재의 배열순서와 비교한다. 2장에서 살펴본 교재의 배열순서 중에서 (21)에 제시된 항목들 위주로 선별하여 다시 배열하고 비교하도록 한다.¹⁹⁾

- (22) ① -고(동등/유사) ⇒ ⑦ -어서(계기) ⇒ ⑫ -(으)니까(인과) ⇒ ⑧ -지만(대립) ⇒ ⑪ -어서(인과) ⇒ ⑭ -기 때문에(인과) ⇒ ⑬ -(으)ㄴ데(배경) ⇒ ④ -(으)ㄴ 후에 ⇒ ⑩ -(으)면(조건) ⇒ ⑤ -기 전에(계기)

어 있지만, 다른 교재에서는 교통 상황에 따른 대처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주제나 과제, 활동에서 사용할 것인가가 집필자, 교재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이다. 주제, 과제, 활동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연결어미의 배열순서도 달라질 수 있다. 초급 단계에서 다루는 意思疏通機能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 습득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적절히 배열하되, 연결어미의 배열순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연구의 입장이다.

19) (22)~(26)의 연결어미 앞에 쓰인 번호는 (21)의 번호에 따른 것이다. 배열순서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제시한다.

기) ⇒ ⑥-(으)면서(동시) ⇒ ⑱-어도(기대 부정) ⇒ ③-자마자(즉각적 계기) ⇒ ⑯-는 바람에(인과) ⇒ ⑰-어서 그런지(인과)

(21)과 (22)를 비교해 보면, 동등/유사 관계를 배열하고 시간 관계를 배열한 것은 일치한다. 조건 관계와 기대 부정의 관계를 배열한 순서도 같다. 하지만 여러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22)는 시간 관계의 連結語尾의 배열 순서가 (21)과 다르다. 동시 관계와 즉각적 계기 관계의 배열순서 및 배열의 인접성도 차이가 난다. 또한 조건 관계와 인과 관계의 배열순서도 인과 관계가 먼저 제시되어서 차이를 보인다. 인과 관계 連結語尾 간의 배열순서도 ‘-(으)니까’가 먼저 배열되고 ‘-어서’가 나중에 배열된 양상이다. 다만 그 외의 인과관계의 연결어미 배열 양상은 (21)과 유사하다. 각 連結語尾가 특정 주제나 의사소통 상황 및 과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有標性을 고려한 連結語尾의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조건과 인과 관계, 인과 관계의 일부 연결어미, 시간 관계의 일부 연결어미의 배열순서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

(23) ①-고(동등/유사) ⇒ ⑪-어서(인과) ⇒ ④-(으)ㄴ 후에(계기) ⇒ ⑤-기 전에(계기) ⇒ ⑭-기 때문에(인과) ⇒ ⑫-(으)니까(인과) ⇒ ⑩-(으)면(조건) ⇒ ⑧-지만(대립) ⇒ ⑦-어서(계기) ⇒ ⑨-(으)ㄴ데(대립) ⇒ ⑥-(으)면서(동시) ⇒ ⑬-(으)ㄴ데(배경) ⇒ ⑱-어도(기대 부정) ⇒ ⑰-어서 그런지(인과) ⇒ ③-자마자(즉각적 계기) ⇒ ⑯-는 바람에(인과)

(21)과 (23)을 비교해 보면, 동등/유사 관계가 먼저 배열되고 시간 관계가 배열된 것은 같다. 조건 관계와 기대 부정 관계를 배열한 순서도 같다. 하지만 시간 관계 連結語尾 간의 배열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조건 관계와 인과 관계의 배열순서도 (21)과 다르다. 계기의 ‘-어서’와 인과의 ‘-어서’가 순서를 달리하고 있는 것도 (21)을 기준으로 보면 特異한 배열이다. 인과 관계와 시간 관계의 배열, 조건과 인과 관계의 배열, 시간 관계에 속하는 연결어미 간의 배열, 인과 관계에 속하는 연결어미 간의 배열이 (21)과 다르다.

(24) ①-고(동등/유사) ⇒ ⑧-지만(대립) ⇒ ②-고(계기) ⇒ ⑫-(으)니까

(인과) ⇒ ⑩-(으)면(조건) ⇒ ⑦-어서(계기) ⇒ ⑪-어서(인과) ⇒ ⑥-(으)면서(동시) ⇒ ⑤-기 전에(계기) ⇒ ④-(으)ㄴ 후에(계기) ⇒ ⑬-는데(배경) ⇒ ⑭-기 때문에(인과) ⇒ ⑱-어도(기대 부정) ⇒ ③-자마자(즉각적 계기) ⇒ ⑰-어서 그런지(인과) ⇒ ⑯-는 바람에(인과) ⇒ ⑮-(으)ㄴ 덕분에(인과)

(21)과 (24)를 비교해 보면, 조건 관계와 기대 부정 관계의 배열순서는 같다. 하지만 대립 관계와 시간 관계의 배열순서가 다르다. 또한 인과 관계와 조건 관계의 배열순서도 차이가 있으며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連結語尾 간의 순서도 다르다. 계기의 몇몇 連結語尾와 조건 관계의 순서도 서로 다르게 배열되어 있다.

(25) ①-고(동등/유사) ⇒ ②-고(계기) ⇒ ⑧-지만(대립) ⇒ ⑦-어서(계기) ⇒ ⑪-어서(인과) ⇒ ⑫-(으)니까(인과) ⇒ ⑩-(으)면(조건) ⇒ ④-(으)ㄴ 후에(계기) ⇒ ⑨-(으)ㄴ/는데(대립) ⇒ ⑤-기 전에(계기) ⇒ ⑬-(으)ㄴ데(배경) ⇒ ⑭-기 때문에(인과) ⇒ ⑱-어도(기대 부정) ⇒ ⑰-어서 그런지(인과) ⇒ ⑥-(으)면서(동시) ⇒ ③-자마자(즉각적 계기) ⇒ ⑯-는 바람에(인과)

(21)과 (25)를 비교해 보면, 동등/유사 관계와 시간 관계, 그리고 대립 관계의 배열이 유사하다. 계기의 連結語尾 중 일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21)과 유사한 배열을 보인다. 조건 관계와 기대 부정의 관계를 배열한 순서는 일치한다. (21)과 (25)의 가장 큰 차이는 조건 관계와 인과 관계의 배열이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인과 관계에 속하는 일부가 다른 배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 ④-(으)ㄴ 후에(계기) ⇒ ⑪-어서(인과) ⇒ ①-고(동등/유사) ⇒ ⑩-(으)면(조건) ⇒ ②-고(계기) ⇒ ⑤-기 전에(계기) ⇒ ⑧-지만(대립) ⇒ ⑭-기 때문에(인과) ⇒ ⑫-(으)니까(인과) ⇒ ⑦-어서(계기) ⇒ ⑮-(으)ㄴ 덕분에(인과) ⇒ ⑰-어서 그런지(인과) ⇒ ⑬-(으)ㄴ/는데(배경) ⇒ ⑥-(으)면서(동시) ⇒ ③-자마자(즉각적 계기) ⇒ ⑱-

어도(기대 부정) \Rightarrow ⑩ - 는 바람에(인과)

(21)과 (26)를 비교해 보면, 조건과 기대 부정 관계의 배열순서는 같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조건과 인과 관계의 순서도 다르며, 인과 관계에 속하는 어미들의 배열 양상도 차이가 있다. 계기에 속하는 연결어미들의 배열 양상도 (21)과는 확연히 다르다.

(21)과 (22)~(26)의 連結語尾 배열순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동등/유사 관계를 먼저 제시하고 시간 관계(계기, 즉각적 계기, 동시)를 나중에 배열한 양상은 (21)과 (22), (23), (24), (25)가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간 관계를 먼저 배열하고 대립 관계를 나중에 배열한 것은 (21)과 (22), (23), (25), (26)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조건 관계와 인과 관계의 배열 양상은 (21)과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다. 조건 관계와 양보 관계의 배열의 선후 양상은 (21)과 (22), (23), (24), (25), (26)이 모두 일치하였다.

특정한 의미 관계에 속하는 連結語尾들 간의 배열순서를 보면, 시간 관계에 속하는 連結語尾 배열의 선후 양상(-고, -자마자, -(으)면서)은 (21)과 나머지 모두가 일치하지 않았다. (21)은 ‘-고, -자마자, -(으)면서’의 배열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고, -(으)면서, -자마자’의 배열 양상을 보였다. ‘-는 후에, -기 전에’의 배열은 (21)과 (22), (23), (25), (26)이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대립 관계에 속하는 연결어미의 배열(-지만, -는데)은 (21)과 (23), (25)가 같은 양상을 보였고, (22), (24), (26)은 ‘-지만’만 배열하여 차이를 보인다. 인과 관계 連結語尾 배열의 선후 양상(-어서, -(으)니까)은 (21)과 (23), (25), (26)이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과의 ‘-기 때문에, -(으)나 덕분에, -는 바람에, -어서 그런지’의 배열 양상은 (21)과 (22)만 같고, 나머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상에서 有標性을 고려한 連結語尾의 배열순서와 각 교재의 배열순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教育的 價值, 教育課程과의 連繫性, 意思疏通 중심의 教授法에서 요구하는 과제 해결 능력의 반영 정도가 교재마다 다르기 때문에 連結語尾 배열순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有標性에 기반한 連結語尾의 의미 관계를 고려한 배열순서가 한국어교재에서 일부 符合하는 면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면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한국어 連結語尾의 의미 관계에

대한 보다 綿密한 연구를 바탕으로 有標性的의 고리를 더 많이 抽出해 낸다면 한국어 학습자들과 교수자들에게 유용한 連結語尾의 배열순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有標性을 기반으로 한국어 連結語尾의 意味 關係를 분석하였다. 동등/유사 관계, 시간 관계, 대립 관계에 속하는 連結語尾가 각각 고유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것은 有標性에 의한 分化의 결과임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조건 관계, 인과 관계, 기대 부정의 관계에 속하는 連結語尾도 有標性에 따라 고유의 의미 관계를 실현한다고 보았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동등/유사) ⇒ -고(계기) ⇒ -자마자(즉각적 계기) ⇒ -(으)ㄴ 후에(계기) ⇒ -기 전에(계기) ⇒ -(으)면서(동시) ⇒ -어서(계기) ⇒ -지만(대립) ⇒ -는데(대립) ⇒ -(으)면(조건) ⇒ -어서(인과) ⇒ -(으)니까(인과) ⇒ -(으)ㄴ데(배경) ⇒ -기 때문에 ⇒ -(으)ㄴ 덕분에(인과) ⇒ -는 바람에(인과) ⇒ -어서 그런지(인과) ⇒ -어도(기대 부정)”의 배열순서를 추출하였다.

한국어 교재 5종 30권의 교재를 대상으로 連結語尾의 배열 양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有標性에 기반한 連結語尾의 배열순서와 한국어 교재의 連結語尾 배열순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교재의 連結語尾 배열순서는 有標性을 고려한 배열순서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조건 관계의 連結語尾와 인과 관계의 連結語尾를 배열하는 순서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 논문은 連結語尾 일부의 의미 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連結語尾 전반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지 못한 限界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어 교재에 실린 連結語尾 전체의 배열 양상을 비교 검토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有標性에 기반한 連結語尾의 의미 관계를 통해 한국어 連結語尾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한국어교재에서의 連結語尾 배열순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루지 못한 의미 관계를 연구하여 추가적인 連結語尾 배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 권미미(2008), 「한국어교육문법의 인과 관계 연결어미 연구」, <교육문화연구> 14, 인하대학교, pp.147~174
- 권수정(2010), 「한국어교육을 위한 양보관계 연결어미 연구」, <인문논총> 20, 서울여자대학교, pp.198~231.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 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9~36.
- 김은경(2006), 「시간의 연결어미 “-아/어서”의 통사론적 특성을 이용한 지도 방안」,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7~69.
- 김제열(2001), 「한국어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93~121.
- 김지혜(2009), 「한국어 연결어미 “-기에”와 “-길래”에 대한 연구 - 교육 문법 항목으로서의 “-기에” 설정을 위하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pp.469~492.
- 박진호(2009), 「동시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서’의 비대칭적 용법」, <한국언어문화> 38, 한국언어문화학회, pp.173~187.
- 방성원(2003), 「고급 교재의 문법 내용 구성 방안」,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43~168.
- 장경희(1995), 「국어 접속 어미의 의미 구조」, <한글> 227, 한글학회, pp.151~174.
- 서희정·홍윤기(2010), 「한국어교육에서 양보 연결어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국어교육> 86, 한국국어교육학회, pp.185~208.
- 안주호(2002), 「한국어교육에서의 [원인] 연결어미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59~180.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 한신문화사.
- 이수연(2011), 「한국어 문법교육에서의 연결어미 연구 - 시간표현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110.

- 이은경(2007), 「‘-고’ 접속문과 ‘-어서’ 접속문의 비교 - 동사 유형 및 문형을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18-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333~356.
- 이해영(1998), 「문법 교수의 원리와 실제」, <이중언어학> 15-1, 이중언어학회, pp.411~438.

■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s of Connective Endings and the Learning stage Arrangement of Connective Ending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the Meanings of Connective endings based on the Markedness—

Hong, Yun-ki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eanings of connective endings based on the markedness and the learning stage arrangement of them in 5 different Korean language textbooks. First of all, I assert that the markedness labels the meanings of connective endings as equality or similarity, time, confrontation, condition, cause and effect, and denial of expectation, etc.

An analysis of the markedness of the connective endings shows that ‘-고’(equality or similarity) should be arranged in the first place, then ‘-고’(opportunity), ‘-자마자’(immediate opportunity), ‘-(으)ㄴ 후에’(opportunity), ‘-기 전에’(opportunity), ‘-(으)면서’(simultaneity), ‘-어서’(opportunity), ‘-지만’(confrontation), ‘-는데’(confrontation), ‘-(으)면’(condition), ‘-어서’(cause and effect), ‘-(으)니까’(cause and effect), ‘-(으)ㄴ데’(background), ‘기 때문에’(cause and effect), ‘-(으)ㄴ 덕분에’(cause and effect), ‘-는 바람에’(cause and effect), ‘-어서 그런지’(cause and effect), and lastly ‘-어도’(denial of expectation).

Finally, I present the learning stage arrangement of the connective endings in 6 different Korean language textbooks. The learning stage arrangement partly has point of similarity between connective endings based on the markedness and them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However, the arrangement of connective endings related to condition, or cause and effect based on the markedness is different from the arrangement of them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 Key-words : connective endings, markedness, meaning of connective ending,
learning stage arrangem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textbook